



1 스마트토이 비즈니스센터 개소
2 최첨단 가상증강현실 장비
3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전경



춘천에 스마트토이 비즈센터 VR·AR 거점센터 ‘시동’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5월 25일 춘천시 서면 강원창작개발센터에 도내 최대 규모의 시제품 제작소인 ‘스마트토이 비즈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했다.

스마트토이는 4차 산업혁명 ICT 융복합 기술이 접목된 완구제품으로,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반영된 다양한 전자제품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사업은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센터는 메이커스랩, 3D프린팅랩, IoT개발랩, 정밀가공랩 등 90종의 산업용 전문장비를 도입하며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한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에 스마트토이 클러스터가 추가돼 춘천에 어린이왕국 콘텐츠를 추가하게 돼 뜻깊다”며 “춘천이 어린이 왕국이 되는데 스마트토이가 큰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토이 비즈센터의 이용방법은 센터 홈페이지(stb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은 아울러 가상증강현실(VR·AR) 제작거점센터로 또 다른

도약을 모색 중이다. 진흥원은 애니메이션박물관, 토이로봇관, 강원콘텐츠코리아랩, 강원음악창작소, 춘천시영상산업지원센터 등 사업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ICT기업은 물론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전국 최고의 플랫폼 역할을 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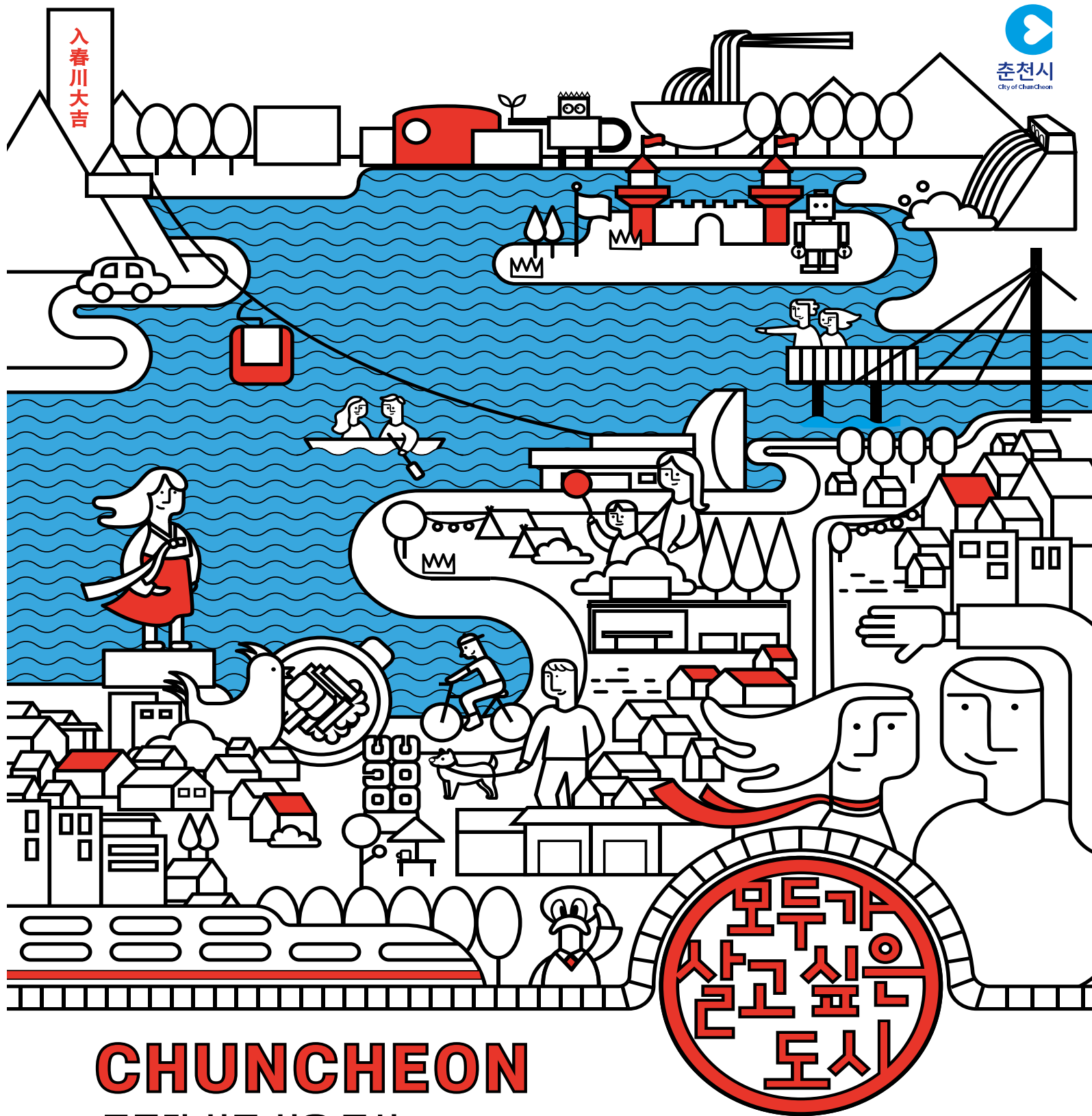
진흥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공모한 지역 VR·AR 제작거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국비에 강원도와 춘천시의 지방비를 지원받아 ‘VR·AR 제작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총 79억원을 들여 강원도 내 VR·AR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도내 개발자와 기업에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비롯해 제작비, 상용화, 전문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춘천시 서면 진흥원 내에 들어선 거점센터는 약 892㎡ 규모로 조성됐다. 버추얼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을 위한 브이튜버룸, 고품질의 3D 콘텐츠 제작을 위한 모션캡처실, 최신 VR·AR 개발 장비 등 첨단 시설과 장비가 들어섰다. 아울러 도내 VR·AR 콘텐츠 개발자라면 누구나 무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강원지역 특화 분야인 의료, 레저·휴양 산업과 연계한 실감 콘텐츠 산업을 육성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도울 예정이다.

김홍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은 “강원도 내 VR·AR 제작거점센터가 실감 콘텐츠 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❶

3



CHUNCHEON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반복되는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 도시는 늘 사람의 꿈과 욕망이 가득합니다.

별꽃향기 가득, 사람과 자연이 만족하며 공존하는 곳

느리게 걸어가며 하루가 참만하게 느껴지는 곳,

춘천은 언제나 낯설지만 아름다운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네이버에서
춘천을
만나보세요.

